

“독거노인 돌보며 가족처럼 살아요”



신행현장

대구 효행의 집서 봉사 6명의 보살



◇ 자원봉사자 보살들과 '효행의 집'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 집일을 하듯 생활하는 특특히 봉사활동을 펼치는 6명의 주부 봉사자들이 있다. 이들의 자원봉사는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 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5일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효행의 집', 6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원봉사자 전유덕·김승자(대구시 북현동)보살들과 큰 방에 마주앉아 차를 마시고 정담게 이야기를 나눈다. 잠시 후 심상한 과일과 반찬거리를 잔뜩 든 박춘희 보살(수성구 화성아파트)이 들어온다. 이어 신은주 보살(경산시 와촌면)이 할아버지에게 줄 감기 약을 사 가지고 들어온다.

'효행의 집'에 기거하며 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유덕 보살이 총마다 인원수에 맞춰 3일치 반찬거리를 고루 분배하여 나눠주면 자원봉사 보살들이 할머니들과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할아버지들은 또 빗자루를 들고 각 방을 청소하는 모습이 여느 가정집과 똑같다.

지난해 10월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사재를 내놓아 설립된 대구 '효행의 집'은 일반 노인 시설과 다른, 선진국형 그룹홈 형태다. 3층 빌라로 이뤄진 효행의 집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13명은 각 층마다 살림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가족처럼 생활한다.

할아버지들은 주로 집안청소와 잡일을 하고, 할머니들은 식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효행의 집운영에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주는 현영주 정소영 보살 등 6명의 보살들이다.

효행의 집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6명의 보살들은 대구와 경산 등에 거주하는 보살들로 효행의 집 취지가 좋아 지난해 10월부터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 만큼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틀러 노인들의 말

식사수발·집수리등

그룹홈 대소사 솔선

사찰순례도 계획

벗은 물론 집수리 등 대·소사 일들을 처리한다.

봉사대장인 전유덕 보살은 "자원봉사자 보살들은 효행의 집 일이라면 언제나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온다"며 "효행의 집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실현하는 장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대림동 일대 경로당을 돌며 2년간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치

매노인 간병봉사를 해온 전보살은 김현준 원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 대구로 내려와 아예 효행의 집에 기거하며 봉사하고 있다.

신은주 보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만난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다"며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은 삶의 진리를 배운다"고 귀띔한다.

또 김승자 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효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내 부모만인 아닌 어렵게 사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효행의 집에 살고 있는 유재수 할아버지(78세)는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 좋다"며 "아들 며느리 눈치보며

함께 산 것에 비하면 이곳 효행의 집이 꼭 내집 같이 편하다"고 즐거워했다.

김봉희 할머니(79세)도 "처음 아들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맬 때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우연히 이곳을 찾아왔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었고 이제는 부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6명의 자원봉사 보살들은 효행의 집 노인분들이 불교신행도 할 수 있도록 간이법당을 마련하고 사찰순례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효행의 집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다. (053)783-2340.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헌혈과 장기기증 생명 나누는 실천행



법장스님
수석사 주지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 종종 '생명을 나누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나누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상(相)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욕심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지 못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며 해탈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눈, 코, 입, 몸을 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보살 마하살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몸이 인연이 모이면 생(生)하고 인연이 다하면 멸(滅)하는 것인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살아가는

"내 몸뚱이 집착하면 행복 느낄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육신이란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가 뭉쳐서 흩어지는 것이니 생(生)이란 맑은 허공에 흰 구름 한 조각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어찌 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불교의 목적은 이상세계(理想世界) 구현에 있습니다. 즉, 자유와 해탈,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나 영원하리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얻을 수 있으며,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깨달음도 증생구제(增上)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이와 같이 말이 나 생각이 아닌 자기를 버리는 실천행입니다.

중국의 한 스님은 '교류수불류(橋流水不流)'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엉터리 같긴 하지만, 당치 않은 말장난이 아니라 고경관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 힘들다는 역설적인 의미도 함축돼 있습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칼날 같은 무서운 경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도 내 몸뚱이에 집착하는 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부처가 되는 길은 고사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 생사해탈에 이르는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만큼 법업을 느낄 수 있는 자비행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無上最高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손실감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불행의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나누는 행위를 우리는 보살행, 자비행, 동사행(同事攝·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는 것), 동체대비라고도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8만 대장경의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인 장기를 나누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활속의 불교

베짱이 없는 것도 도둑질

홀로 살아 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 흔히들 '로빈슨 크루소'를 입에 올린다. 틀린 말도 아니다. -비록 소설이긴 해도- 그는 분명 무인도에서 홀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가 진정한 '홀로'였을까?

로빈슨 크루소가 스스로 생산해서 먹었던 것들도 100% 그의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햇빛과 비 그리고 바람 같은 것들이 돕지 않았다면 하루 끼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도운 결과다.

지구도 태양계의 인력에 의해 제 궤도를 돈다. 또 달의 밀고 당기는 힘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물고기와 인간은 그 덕을 본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얽히고 설린 사회구조의 상호성(相補性)은 더 이를 나뉘기 없다.

현대 사회의 모든 인간은 한시라도 남

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생존 능력으로만 말한다면 원시인보다도 열등한 수준이다. 자동차 한 대만 보더라도 그렇다.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으니 적어도 수만 명의 도움이 있었어야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남을 도와 준다는 행위라는 게 결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선행은 아니다. 내 하루하루가 남의 은덕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입은 바를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말이다.

나도 남을 도움 만큼 도와오니 계산은 끝났다는 논리로 가능하겠지. 그렇다면 태양의 빛, 바람의 유풀, 물의 유풀, 흙의 유풀...은 어떤 셈법으로 돌려 줄 것인가. 그런 유풀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니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인

다. 나눔은 결코 내 몫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몫을 그에게 되돌려 준다. 잠시 내가 말았던, 본래 그의 것을 되돌려 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

때로 사회는 되돌려주어야 마땅한 것을 되돌려 주는데도 박수를 보낸다. 칭찬한다. 좋은 일 했다고 표창하고, 이름 새겨 주고 널리 알린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 뿐인데도 내 것을 준 것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 또 빛을 진 것인가, 금상첨화인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기를 간곡히 권하는 불교의 계율 가운데 살생 다음의 금계다. 龍眼

"새들아, 마슈 받을 잘 갖사자"

새로운 나를 찾아 - 다보청소년 심성수련 체험 캠프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몸으로 익히며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불기 2544년 '청소년 심성수련 체험 캠프'를 펼칩니다.

- 기간 불기 2544년 12월 23일 (토) - 12월 27일 (수) ▶ 4박 5일간
- 장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승리 소재)
- 대상 중·고등학교생 80명
- 신청방법 전화, 우편, FAX 또는 직접접수
- 동참비 50,000원 [교재 및 기념품 지급]
- 동참비 농협 413060-51-005281
- 송금구좌 예금주: 대한불교진흥원
- 참가준비물 세면도구, 필기구, 옷
- 수련내용 심성수련, 예불, 명상 호흡수련 [좌선], 강의, 무리별 토론과 주제 발표, 축복 기원, 달빛밧기 명상수련, 별자리보기, 탐력훈련, 사경, 발우공양, 전래 놀이, 묵언수행 12시간, 산행, 불꽃축제 등

문의 : (다보수련원) (043) 833-7789 · 833-2542 FAX (043) 833-2550
(대한불교진흥원) (02) 719-2606 FAX (02) 719-5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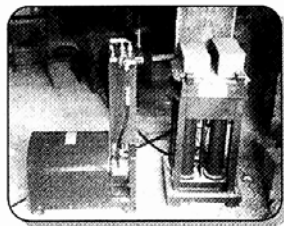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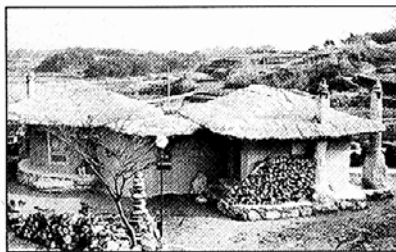
[제]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사 다보수련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 모델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모집

(2001년 전기 불교종무행정전공 학생 모집)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관리자 과정
 2. 모집학과

학 과	전 공
종무행정학	불교종무행정
 3. 모집인원 00명
 4. 지원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제한 없음
 5. 전형방법

전공구분	전형방법
불교종무행정	서류전형/면접(공통)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0. 12. 4(월) ~ 12. 14(목) 10:00 ~ 18:00 (토, 일요일은 제외) 나. 장소 : 대학원 교학관
 7.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0. 12. 16 (토) 10:00 ~ 나. 장소 : 고사당일 대학원 계서판에 공고
 8. 합격자 발표 2000. 12. 20(수) 15:00 이후
 9.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탈모 상반신 사진 [3×4] 4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점수 기재)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0. 기 타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교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관으로 문의바람
- 전화 : 02)760-4271 · 팩스 : 02)760-4273 ·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가. 공무원·교직원·군경으로 근무하는 자는 수업료 일부를 면제함.
가.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성적우수수급금을 지급함.
나. 종무행정사료에게는 한성대 총장,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종무행정관리사 자격증을 수여함.